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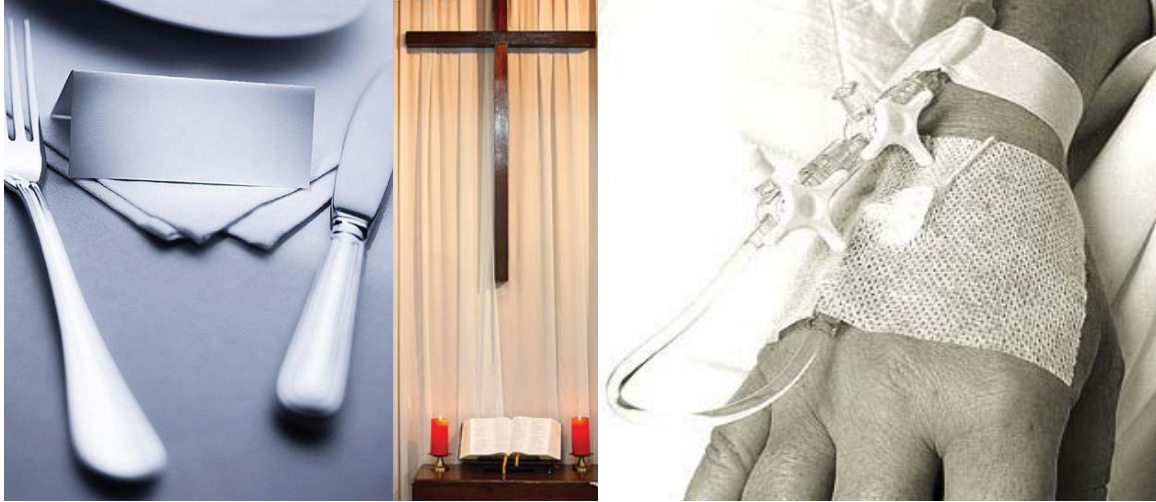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시사문화QT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꾸다

사람은 육체(肉體)를 가지고 있다. 먹어야만 삶을 지속할 수 있다. 먹기 위해 산다는 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하는 것을 밥벌이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그냥 생길 리 만무하다. 농자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기에 매우 중요하던 이야기이다. 물론 육체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다. 하지만 먹는 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시대를 반영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는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배꼽아 본 적 없이 배가 터질 듯 먹는 많은 아이들이 이 시대의 풍요를 대변한다. 빠르고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 또한 빨리빨리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현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소나무 껍질을 삶거나 들풀을 뜯어 죽을 쑤어먹던 시대는 오랜 옛날이야기에나 나올법한 동화와 같다. 만들기 어렵고 까다로운 음식은 부역을 벗어나 대량 생산 형태로 공장화 되어간다. 시대가 변화해 가듯 우리의 식문화도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문화가 변질되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배를 곯아 죽었다면 요즘은 과식과 나쁜 식습관으로 병들어 죽어간다. 수





많은 종류의 성인병들은 성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를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나쁜 음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알기에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하리만큼 이 고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먹는 것을 어떠한 법으로 규정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먹는 법에 대하여 조언을 시도하기만 해도 마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우리만의 고유한 자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을 구분하셨으며, 레위기 7장과 17장에서는 동물의 피와 기름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분류하고 계시다. 왜일까? 단순한 의식적 문제였던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말씀을 간과하고 지나친다. "시대가 지났으니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우리에게 이롭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다."라며 우리는 구별과 절제 없이 먹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라 욕하는 유대인은 이상하게도 아직도 그 낡고 낡은 법을 따라 먹고 있다.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물론 나는 유대교와 안식교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먹는 법을 가르치려 하셨을까?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가르쳐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자손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수많은 임신 후 검사들은 아이가 건강한 아인지 혹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함이며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열심은 계속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나도 오염된 환경이 가져오는 결과를 현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건강한 후손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강대한 민족으로 자라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건강상태 또한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먹는 것'을 우리만의 고유한 자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음대로 먹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음식문화에 있어서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꿔야 한다. 위험천만한 음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다. 로마제국은 납중독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이 있다. 로마는 당시 은을 대량생산하고 있었고 은 생산과정의 부산물 납은 은보다 300배 이상 많이 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납을 식기, 수도관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거의 모든 시민이 납중독으로 죽어갔고 기형아 출산으로 왕 통은 이어질 수 없었으며 건강한 군인들을 기대할 수 없었다. 결국 로마는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번성은 개개인의 건강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했기에 유대 민족에게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길 것을 요구하셨다. 음식법을 잘 지킨 결과 유대민족은 번성하게 됐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으며 이집트 땅에 가득 퍼졌음은 물론(7절) 유대민족의 여인들은 매우 건강하였다.(19절) 같은 땅에서 살고, 그 곳에서 난 농작물을 먹고 산 이집트인과 유대인의 극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음식법에 있었다. 다니엘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음식법의 활약을 발견할 수 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은 이방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음식법을 철저히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차이는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현대에 와서 성경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식법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취급을 받으며 무시되고 있다. 과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올바른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할 우리는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다. 노아 방주사건 이후로 고기가 허락되었듯이 과학의 발전으로 먹어도 될 음식이 더 많이 허용된다고 믿는다. 허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올바르지 못한 방향-물질주의적-으로 나아갈수록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음식문화에 있어서 레위기서의 부활을 꿈꿔야 한다. 위험천만한 음식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순종하자, 우리가 먹는 것의 문제에서도.

글. 이지현(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